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90年을 향한 目標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教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THE GOSPEL NEWS

3月15日(水) <1989年> 第462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楊炯春・編集人 李大京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50円

昭和39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0474-24-7461

日本教会代表(NCC)訪韓

法務部長官에게 在日・政治犯釈放 要請



許亨九法務部長官에게 在日韓国人政治犯 釈放を 要請する 日本教会代表

徐勝等 세 사람과 面會 日本政府에 비자發給 要請키로

在日韓国人政治犯釈放を要
求하여 日本 기독교協議會와
난 二月十三・十六日, 訪韓
했다.

代表團은 日本 NCC 議長
竹内謙太郎牧師(日本聖公
會)와 日本 기독교協議會
代表(正平協會長・藤田英
彦牧師(NCC副議長・辻宣
道牧師(教団總會議長・楊
春牧師(總會長・姜榮一牧
(社會局長) 등으로 許亨九
法務部長官과 面談했다. 이
자리에는 檢察局長 金容
熙도 同席. 許亨九法務部長
官은「大韓民國은 民主主義
를 守護」한다고 強調「이
를 파괴하는 者는 용서할 수
없다」고 警戒하며 지금날
은자는 確信犯이라고 덧붙
었다. 同席한 金檢察局長은
「政治犯을 釈放해도 日本
政府가 入國査証을 안내준
다」고 지적「日本政府가 早
速히 入國査証을 發付토록」
努力해 달라고 부탁했다.
日本教界代表團은「在日韓
国人은 日本에서 태어난 世
代로 特殊한 狀況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家族이
기다리는 居住地로 빨리 갈
수 있도록 申치를 바란다고
要請「그들의 釈放이 日韓
의 友好 親善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된다」고 강
조 釈放를 強力히 要求했
다. 아울러「그들의 釈放이
第六共和國의 民主化」의 한
척도가 되며, 七十年 八十年
代의「남조, 北조」에 의한
自白과 아울러「不公平한 裁
判」의 이미지가 너무 강
하니「民主化가 이루어지는
이시점에서 일체히 釈放할
時代的 責任이 있다」고 거
들, 在日韓国人政治犯의 釈
放을 要求했다.

代表團은 이에 앞서 釈放
된 姜宇圭氏(73才) 등과 懇
談, 手摺자 家族과도 만나
위로하고 간담했다.
代表團一行은 許亨九法
務部長官과 面談한후 大田矯
道로가 徐勝, 李東基, 張
義均씨를 만나 격려했
다. 民主黨院內總務 張石和
議員과 黨職者, 平民政에서
도 人權委員이 同行했다.
民主黨 金泳三總裁를 訪
問, 訪韓目的을 說明 協力
을 要請했다. 同黨人權委員
姜信玉議員은 本國政府
와 協商한 간첩은 釈放하
지 못한다는 條項에 在日同
胞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指
摘, 全員 釈放를 爲해 努
力하겠다고 約束했다.
日本教界代表團의 訪韓에
韓國 NCC가 積極 協力했
으며 韓國天主敎도 많은 協
力を 하였다.
日本教界代表團의 訪韓은
지난十二月六日, 總會任職員
會에 在日韓国人政治犯 釈放

을 要求하여 代表團 派遣
을 決議, 十二月十九일부터
二十三日까지 楊炯春總會長
金德成牧師, 姜榮一社會局長
이 歸國, 各界에 要請, 이
報告를 日本 NCC가 받고
日本 NCC, 日本 기독교協議會
가 代表團을 構成하여 訪
韓케 된 것이다.
日本教界는 앞으로 日本
外務省, 法務省을 訪問, 永
住權이 있었던 在日韓国人
政治犯의 釈放된者들의 日
本入國을 無條件 받아들이
도록 交渉할것을 推進中에
있다.

總會任職員會

서울서「宣敎의 밤」갓기로

總會任職員會가 三月十日
(金)京都敎會에서 開會했다.
楊炯春總會長의 司會아래
地方會, 各局, 各機關等의 報
告, 東京第一敎會를 辭任하
고 歸國하는 高完錫牧師의
感謝의 인사들이 있은후 다
음과 같은 案件이 討議됐
다.

討議 案件

一, 平和會議

日本 기독교協議會(NCC)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
CUSA)主催하여 오
는 三月二十九日(水)부터四
月一日(土)까지 在日平
和會議에 金桂賢牧師外 三

二, 台灣長老敎會

오는 三月二十八日(火)
부터 三十日(木)까지 열
리는 台灣長老敎會에 李
大京總務를 代表로 派遣키
로 하다.

三, 本國五敎團과의 宣敎

協議
四月十四日(金) 서울에서
갓게되는 本國五敎團과의宣
敎協議會에 總會長, 副總
會長(牧師・長老), 宣道局長,
總務가 出席키로 하다.
四, 在日同胞을 위한 宣
敎의 밤

五, 各種會議

①미주 韓人長老敎會 總會
(六月二十一・二十三, 시카
고), ②JNAC大會(七月七
・十一日, 캐나다 방쿠버),
③캐나다長老敎會와의 宣敎
協議會等에는 總會長, 總
務가 參席키로 하다.
六, WCC서울會議
正義・平和와 創造의 保

協力과 附託

宣敎自立一億圓基金, 總會
宣敎負擔金, 各種特別獻金等
을 早速히 總會事務室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日本基督教團과 總會와의 宣敎協約5周年 記念集會

京都・同志社敎會에서 舉行



同志社敎會에서開かれた敎團과總會との
協約締結5周年記念集會

日本基督教團(總會議長 辻
宣道)과 總會(總會長 楊
炯春)와의 宣敎協約締結五
周年記念集會가 지난三月十
二日(日)午後三時~六時同
志社敎會에 兩敎會가 모여
盛大히 行해졌다.
第一部禮拜는 関西地方會
會長 백인도牧師가 司會,
樋口進牧師와 張悅子執事의
聖書朗誦(에베소서二・十一
・一二), 佐伯幸雄牧師, 李昌
雨牧師의 祈禱, 韓日合同聖
歌隊의 讚揚, 柏木和宣牧師
의「백은 이미」란 說敎가
있었다. 楊炯春總會長의 祝
禱로 禮拜를 마치고 金榮

愛三産業株式會社
(株)濟州カントリークラブ
代表取締役 白 昌 鎬
(東京敎會 長老)
専務取締役 白 一 善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633-7477(代)
FAX (03) 631-7703

創業21年
韓国への
引越しは.....
コスモス
大阪 ☎(0729)39-6911
東京 ☎(03)501-1487
代表取締役 金 慶 得
(東京第一敎會 長老)

中川キム医院
医学博士 金 世 榮
大阪市生野区中川3丁目5-2
(ジョイフルマンション1F)
☎(06) 752-4567
《診療科目》
内 科(循環器・呼吸器・消化器)
小児科・麻酔科・理学診療科・放射線科
《診療時間》
AM 9:00~12:30, PM 5:30~8:00
休診日・水・土曜日午後・日曜・祝日

西南・都諸職会
八教会 六十名 出席



掲げ、それが何であるか示して下さった。ヨハネ 3・14に「モーセが荒野で、青銅で作った蛇を、竿の先に掲げたように、私も木のうえに上げ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十字架のイエス様の姿の中に正にわれらの内成る毒蛇を見、復活のイエス様の姿の中にわれらの救いを見ます。「それは、神の御子を信じる者が、誰一人滅びず、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す」(ヨハネ 3・16)。

我らの生活の基準はこの世の救いの基準でなく、復活のイエス様の姿の中に表われる救いの基準です。

在日大韓基督教会は、宣教80周年を迎えております。今まさに起こりつつある課題と問題、不平・不満、不信はその状況を「しるし」として示されています。時の「しるし」を正しく読まなくてはなりません。ただやみくもに精神主義に、神秘主義に逃避するのではない「囁まれた者で、私の

〒541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名古屋教会 開催

것을 들으며 敎會의 職分에 대한 귀중성을 재발견하였다. 오후 三時~四時에는 諸職身札拜를 드렸다. 書記가 주관하여 회계대표와 서기대표의 헌신의 기도와 兪중운목사님의 使命의 多様性(막 3:13~19)의 說敎에 따라 獻身하는 제직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쳤다. 午後五時에는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6時~8時까지 한시간 동안 敎會各部	日午後1時30~8時까지)를 통하여 諸職의 使命과 직분의 고귀함과 敎會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兪직이게 하는 출발의 계기를 주었으며, 이런研修도움이 개교회별로 다루어질때 믿도있게 진행 발전 결단할수있음을 발걸하였다. 伝道部는 敎會의 伝道使命을 구체적으로 계획기도 추진하며 급변전도표어,친구를 그리스도께"를 향해	기도와 실천계획을 세웠고
이 출석했다. (通信 盧政一)	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안내 헌금위원과 제반 분위기를 은헤로 운 방향으로 준비하기로다 집했으며, 社會部는 敎會내 외의 애경사와 교회의 社會的 使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키로 하였 다. 8時 폐회기도로 마쳐진 금년 研修會는 준비된 자료집을 듣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연수를 받았는데 全諸職員 52名中 49名	이 출석했다.

90年代に向けて在日性を模索

講師に池明観教授、関田寛雄牧師を迎え

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理事長・金君植）創立十五周年記念講座が二月二十三日（木）午後六時半 日本キリスト会館で開かれた。

記念講座に先立って、日頃 RAIK がお世話になった方を招き、懇親会が、早稲田奉仕園でもたれた。

李仁夏牧師は、RAIK の創立時を顧み、日立就職差別との闘いの経験から、在日同胞の為のセンターが必要であった。

活動を十五年継続できたのは日本の教会の支援があったからである、と結んだ。十四年間総幹事として支えてきた喪重度氏は、総会事務所の机一つから出発、資料集めや、財政的苦しかったことを語った。

RAIK との深い関係をもっている中嶋正昭総幹事（教団・三瓶長寿牧師（日基）、日隈光男牧師（NCCC 人権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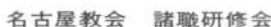
長、菊池邦奇氏（聖公会）からの RAIK に対する期待と働きへの激励の言葉があった。夜は記念講演会があった。

池明観教授（東京女子大）は「現代史と少数民族」と題し、世界的な視野の中で在日韓国人問題をとらえ、在日韓国人も闘う運動と同時に、力をつけていくべきだと強調。

関田寛雄牧師（青山大）は「日本人にとって在日韓国朝鮮人とは」のテーマで、身近なところの出会いをかえりみながら、彼らのラプコールに答えていきたいと結んだ。

RAIK は、資料、研究、情報、運動センターとして、RAIK 通信の発行、教会学、校用副読本、ブックレット、資料集等の企画・編集を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ただし財政面での苦勞が多く、基本運用金の確保を目ざし、会員募集を全国に呼びかけている

肉加工
造販売
式会社
植
会（長老）
3丁目9番26号
1-0055代
1-0090番
送いた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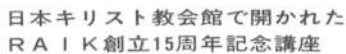
関東・都諸職修練会

主題「区域礼拝運営の実施」

東京教會에 一〇〇余名參加

閔東地方會伝道部(部長金君植)主催諸職修練회가 지날 三月二十六日(日)午後三時~八時 東京教會에서 開催됐다.

큰기쁨이요, 지도자이며 牧
會者의 파토더라고했다. 또
한 教會에서 드리는 자칭
하면 受動的인 信仰에 빠
지기 쉬우나 區域礼拜를 通
해 積極 參與하는 信仰으
로 成長함을 더욱 강조하
였다. 그리고 이웃끼리의 聖
徒의 交際가 깊이 日常生
活面까지 좋은 영향을 미
치게 되다며, 成長하는 教會
를 보면 반드시 區域礼拜
가 잡되는 教會라고, 區域
礼拜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曹畢律名譽長老逝去

京都教会에서 告別式



京都教會 曹畢律名譽長老
가 지난三月三日 逝去하셧다.
享年 八十歲.
故曹畢律名譽長老의 告別式은 三月四日(土)午後二時三十分, 京都教會에서 楊

炯春牧師의 司式으로
 挙行됐다.
 兪錫潑長老의 祈禱, 李鍾
 萬執事의 故人略歴紹介, 楊
 炯春牧師의 「우리
 天國에 있다」(빌립보 3:12)의
 十)란 主題의 式辭, 金在
 述長老의 弔辭, 尹載旺長老
 의 弔電披露, 弔客들의 獻
 花로 告別式을 進行됐다.
 故曹畢律名譽長老는 一九
 ○九年二月十八日出生, 一九

二六年 渡日、一九二八年八月부터 京都中央教會에 出席。一九三一年四月 崔敬學牧師로부터 洗禮받음。一九三二年 京都教會에서 執事로被拔、一九四七年四月十八日 長老將立。向上社保育團理事。民團中支支部議長、信用組合京都商銀 理事等歷任。遺族 夫人 李順海女史의 六男妹의 子女、十四名의孫들이 있다.

調. 「區域礼拜運營과 實施」란 主題 아래 崔基昶監督(富川第一監理敎會)의 講演이 있었다.

崔基昶監督은 監理敎會에서 實施하는 속회에 힘을 기울여, 富川에서 제일 큰 敎會로 成長시킨 牧師로 經驗을 通한 말씀은 듣는 자에게 큰 힘을 주었다.

區域礼拜는 단지 小礼拜



韓國語의 翻譯·寫植·印刷
各種印刷物의 企画·編集

青丘文化社

代表 張 恒 星

〒273 船橋市宮本6-25-13
TEL 0474 (24) 7461
FAX 0474 (24) 7469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栄 吉
(福岡教会 長老)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 番

韓国そうざい・食肉加工
食品輸出入・各製造販売

高山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元 洪 植
(福岡教会 長老)

本社 〒816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番26号
電 話 (092) 461-0055(代)
FAX (092) 461-0090番

※おいしい김치・고추장・떡국発送いたします。

不動產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 話 052(711)4398

